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새로 건설된 보통문거리고기상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새로 건설된 보통문거리고기상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동행하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상점의 외부와 내부를 여러 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상품진열상태, 판매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군인건설자들이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인 건축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특색있는 건축물을 훌륭히 일떠세우는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어항마다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철갑상어, 뽕정어, 메기, 뱀장어, 자라를 보시고 인민들이 사철 펄펄 뛰는 산 물고기를 건져내어 먹을수 있게 되었다고 만족해하시였으며 소고기, 돼지고기, 칠면조를 비롯한 고기와 부위별로 포장한 고기제품, 팔바싸와 각종 통줄임을 보시고는 인민들이 먹고싶은것을 마음대로 요구할수 있게 되었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제일 좋은것을 안겨주려는것이 당의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이라고 하시면서 상점의 봉사자들은 인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며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잘 알고 그에 맞게 상업봉사활동을 짜고들어 진행함으로써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이어 보통문거리고기상점과 자매기관인 보통강상점을 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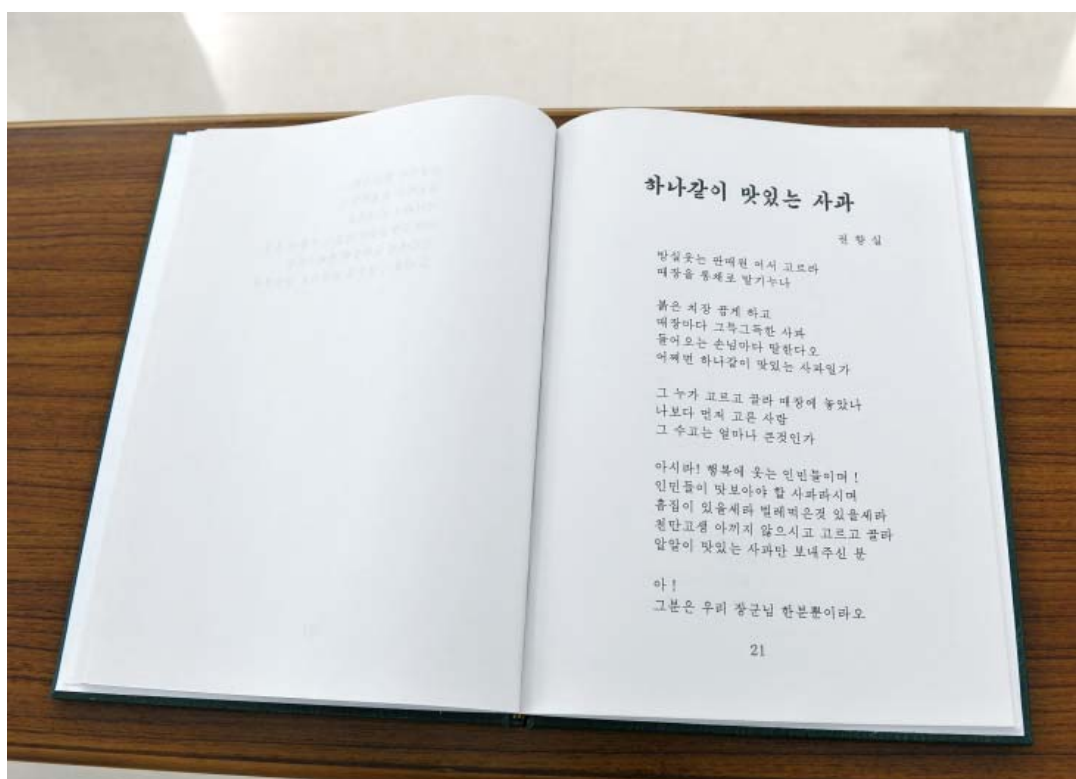


시 돌아보시면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희귀한 남방과일을 비롯한 갖가지 과일들을 받아안은 인민들이 자기들의 심정을 적은 글과 인민의 봉사자가 된 긍지와 자부심을 노래한 상점종업원들의 글 작품집도 보여주시며 시간이 바빠 가지고 가

서 구체적으로 보겠다고, 상점을 돌아보니 쌓였던 피로가 풀리는것 같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지배인과 당비서가 상점종업원들과 함께 출연하는 예술소조공연도 보여주시고 그들을 고무격려해주시면서 인민들에 대한 참다운 봉사자가 되어 보통문거리고기



상점과 보통강상점이 인민들이 즐겨 찾는 상점, 인민들이 그 덕을 단단히 보는 상점이 되게 하라고 당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대고조진군으로 들끓는 나라의 방방곡곡에 거창한 창조물들이 량이 솟구쳐오르고 조국의 만년채부가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다고 하시면서 영웅적인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이 있기에 강성국가의 휘황찬란한 실체가 눈앞에 펼쳐지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수도시민들의 식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는데서 보통문거리고기상점의 임무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상업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봉사활동을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보통문거리고기상점의 종업원들이 수도시민들에 대한 상업봉사활동에서 자신들의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당과 무력기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으시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 당과 무력기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으시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공화국창건 63돐을 맞으며 9월 9일 0시 당과 무력기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으시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영생불멸의 혁명승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선율이 장중하게 울리는 속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을 한없이 그리는 천만군민의 절절한 마음을 안으시고 금수산기념궁전 홀에 들어서시였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당과 무력기관의 책임일군들,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동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립상에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의 맹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할것이다》라는 글씨가 씌여져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당

과 무력기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조국의 해방과 부강번영,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세계자주화 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생전의 모습 그대로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동행한 당과 무력기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 가장 경건한 심정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본사기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평양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평양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3돐 경축

## 중앙보고대회 진행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3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8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대회는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최영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오늘 우리는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우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열렬한 축하와 최대의 경의를 드리면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총공격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는 벅찬 환경속에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3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선택하고 자기 힘으로 건설한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라고 하면서 조선의 선군의 기치 높이 항일대전을 조직명도하시던 시기에 주체적인 정권건설사상과 로선을 제시하신 인민정권건설의 빛나는 전통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 직후 이처럼 복잡한 환경속에서 송고한 민족자주리념과 비범한 정치적수완과 크나큰 포용력으로 온 민족을 묶어 세우시고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정치군사적담보를 마련한 토대우에서 주체 37(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었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명도하시어 우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고 하면서 그는 지난날 외세에게 주권을 강탈당하고 식민지망국의 피눈물을 뿌리던 우리 인민을 자주독립국가의 주인으로 내세우시고 우리 나라를 강

위력한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의 위용떨치게 하여주시였으며 조국의 무궁번영과 주체혁명위업완성의 만년초석을 마련하여주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조국창조자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현명한 령도

밑에 필승불패의 위력을 떨치며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고있다고 하면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국가건설명도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력사상 처음으로 혁명적수령관에게 기초한 사회주의국가건설의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시어 우리 공화국을 명실공히 그 창건자이신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실현하는 국가로 건설하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공화국을 당의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는 강위력한 정치적무기를 창조하시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총공격을 이룩하여야 할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아버지수령님을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며 혁명과 건설을 오직 수령님의 뜻대로, 수령님식대로 해나감으로써 우리 조국을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길이 빛내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올해 5월 중국의 동북지역과 화동지역에 대한 방문에 이어 이번엔 로씨야 연방과 대화인민공화국의 광활한 대지를 오가시며 조중, 조러친선의 년대기에 새로

운 장을 아로새기시고 국제관계발전과 세계자주화위업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시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대외활동은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특기할 사변으로 뒀다.

보고자는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혁명적대고조의 자랑찬 승리로 김일성조선의 100년사를 빛나게 장식하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총공격을 이룩하여야 할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아버지수령님을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며 혁명과 건설을 오직 수령님의 뜻대로, 수령님식대로 해나감으로써 우리 조국을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길이 빛내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고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며 혁명의 수뇌부를 결

사유위하는 길에 우리 공화국의 찬란한 미래가 있다고 하면서 보고자는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어 주체의 강성국가건설 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의 신념을 안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조국통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필생의 위업이였으며 민족지상의 과업이였고 하면서 우리는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받들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철저히 구현하며 안팎의 반동일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판계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감으로써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기어이 앞당겨오야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끝으로 보고자는 모두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공화국의 강성번영과 조국의 자주적통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아가자고 호소하였다.

대회는 애국가의 주악으로 끝났다.

본사기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3돐 경축

##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3돐을 경축하여 김정일장군님을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조국통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필생의 위업이였으며 민족지상의 과업이였고 하면서 우리는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받들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철저히 구현하며 안팎의 반동일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판계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감으로써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기어이 앞당겨오야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이의 리상》의 노래 선율이 울려 퍼지는 속에 《민족의 어머니이신 위대한 수령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

립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등의 글발들이 배경대에 련이어 새겨지고 꽃물결, 춤바다가 펼쳐지면서 공연이 시작되었다.

출연자들은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시고 부강조국건설의 만년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독자적인 선군정치로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우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대서사시적화폭으로 감명 깊게 보여주었다.

아름답고 우아한 음악무용과 힘있고 기백넘친 집단체

조, 천변만화는 배경대 등으로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자랑찬 승리와 영광의 력사를 펼쳐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건국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령도따라 공화국의 강성번영을 이룩하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 천만군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파시하였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씨야연방, 세비리 및 원동지역과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방문성과로 온 나라가 걱정과 환희로 뒹뒹이었고속에서 공화국창건 63돐을 뜻깊게 기념한 이 시각 온 나라에는 이 땅우에 이민위천의 나라를 일떠세우시시고 그 존엄과 위업을 온 세상에 떨쳐가시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공화국이 걸어온 60여년의 력사는 절세위인들의 령도따라 자랑찬 창조와 눈부신 번영을 안아온 승리와 영광의 자랑찬 년대기이며 나라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신 정권건설의 귀중한 경험에 토대하여 주체37(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공화국의 창건은 민족의 운명개척과 자주위업수행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사변이었다.

경애하는 주석께서는 주체 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공화국이 창건된 첫날부터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고위, 자립, 자위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하시어 나라의 정치군사력과 경제력을 천백배로 강화함으로써 인민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자주이자 사회주의이고 인민의 운명이라는 확고

## 선군으로 빛나는 조국

부동한 신념을 지니시고 무력건설과 인민정권건설문제도 우리 나라의 실정과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해결하시였고 경제도 우리 식의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부강조국건설사상과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성과, 존엄높은 공화국의 불패의 위력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공화국이 지난 세기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번이어 붕괴될 때에도 끄떡하지 않았고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동적공세가 극도에 달한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사회주의기치를 굳건히 고수하며 강성대국건설의 새시대를 열어나갈수 있었던것은 주석께서 자주적의 기치밑에 마련하여주시신 자체의 강력한 정치, 군사, 경제제척이 있었기때문이다.

위대한 주석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은 오늘 회세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더욱 빛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앞에 최약의 시련이 닥쳐왔던 지난 세기 90년대에 선군정치군사력과 경제력을 천백배로 강화함으로써 인민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엄혹한 시련의 나날 공장이 멎어서고 인민들이 고통받았을것을 몰라서 선군길을 가는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자들이 칼을 물고 덤벼드는 지금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조국을 지키고 봐야겠기에 이 길을 가는것이라고 하신 장군님의 말씀은 오늘날 인민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린다.

백두에서 개척된 민족자주위업을 완수하는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결사의 의지, 주석께서 맡기고하신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끝까지 지켜나갈 철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최전방초소들을 찾아 걸으신 선군장정은 몇만리이던가.

위대한 선군령장의 그 길에는 동무들이 정 막아나서면 포차라도 끌고 가겠다고 하시며 아슬아슬한 험한 령길을 넘어 찾으신 오성산이며 불과 수십m를 사이에 두고 적군이 총부리를 맞대고있는 최전연초소인 판문점도 있었다.

장군님의 선군령도는 군대와 인민의 무한대한 정신력을 총폭 발시켰다.

미국의 한 방송은 《죽어도 망국노가 되지 않으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진 정치사상실체가 바로 북조선이다. (목숨은 버려도 북조선, 내 체도만은 끝까지 지키겠다. 죽어도 미국이나 일본, 남조선의 노예, 개는 되지 않는다.) 는 각오가 짝 들어

차있는 특이한 사상실체가 바로 북조선이다. 이러한 그들을 공을 격하여 미국이 입을 손실과 회생을 상상해보라.》고 전하였다. 공화국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에 의하여 당당한 위상발사국으로,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다 만들어내는 무비의 정신력과 강위력한 공업적 토대를 가진 강국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이 땅 그 어디서나 펼쳐지는 경이적인 사변들은 위대한 주석의 건국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이시려 초강도강행군 길을 취임없이 이어가시는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노고와 헌신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그이의 애국헌신의 자욱은 나라의 방방곡곡은 물론 지경을 벗어난 수 천수만의 리외국방문의 길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지난 5월 중국을 방문하신 장군님께서 8월에 또다시 로씨야연방의 세비리 및 원동지역과 중국동북지역을 방문하신 소식은 우리 겨레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이께서는 로씨야의 세비리 및 원동의 광활한 대지를 방문하시는 나날 그곳 인민들의 사로 삼감정과 풍습,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부문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료해하시였고 로씨야 인민의 대동력지인 부레야수력발전소와 울란-우데시안의

소베트광장, 대형슈퍼마켓 《메가마트》를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로씨야의 세비리 및 원동지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시는 길에 중국동북지역을 방문하시였을 때에도 장군님께서 중국에서 손꼽히는 대형CNC공작기계생산기계의 하나인 치치히얼 제2공작기계를 참관하시면서 생산정형과 기술발전 및 경영관리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고 인민들의 식생활향상과 복리증진에서 한몫을 담당한 중국에서 제일 큰 우유생산기업인 명유우산업공사 치치히얼 분공사와 다정시의 도시계획전람관, 습지주변에 건설하고있는 주택건설구역과 습지대교, 리밍호수다리 등성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외국방문의 나날에 이어가신 머나먼 로정에는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강성국가를 하루빨리 일떠세우시려는 위대한 구상이 어려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처럼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해 외국방문의 나날 하루에도 수백수천리를 이어가시며 인민생활과 관련한 수많은 단위들을 돌아보신 인민의 령도자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본사기자 최석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37(1948)년 4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를 소집하시고 역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 주석께서는 보고에서 우리나라에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북과 남의 모든 애국력량이 단합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남조선에서 실시하려는 망국적인 단독선거를 지지파란시키며 통일적자주독립국가 건설하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시였다.

조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란 누구를 막론하고 당국적단독선거를 단호히 거

부하여야 한다고, 단결만이 우리의 승리를 담보할수 있다고 하신 수령님의 력사적인 보고는 민족분열의 엄중한 위기를 라개하고 전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적인 자주독립국가를 창건하기 위한 강령적지침으로서 회의참가자들은 물론 전민족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김일성주석의 발기에 의하여 진행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범죄적인 《단선단정》책동을 짓부시고 전조선적인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민족의 단합을 실현한 력사적인 회합이었다.

강력한 법적무기를 마련하시어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을 위한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전민족의 단합으로 그 사회정치적지반을 마련하시는데 한편 앞으로 창건될 공화국의 법적기초로 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제정하고 지체없이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통일적인 중앙정부가 수립되기 전이라도 앞으로 세우게 될 중앙정부의 헌법을 제정하고 실시하여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한 투쟁을 어느 정당이나 정치세력들의 조직에 따라 진행되는 순수 정치투쟁이 아니라 법에

본사기자



사회주의 조선의 수도답게 나날이 변모되어 가는 평양



# 끝장 내야 할 민족 비극의 역사

얼마전 남조선의 한 통신은 《미국의 내정간섭에 한국은 골실골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에서는 거침없이 남조선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미국, 수지도 모르고 그에 아무하는 현 《정권》을 비판하면서 《도대체 정부가 주권을 가지고있는지의 심할 정도의 정황도 있다》고 개탄하였다. 세계의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자주권수호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는 오늘 여전히 남조선에서 주인행세를 하고있는 미국과 송미, 노예골종의 식에 매달려 더러운 정치적 목적을 부지해가는 남조선의 현 보수집권세력에 대한 응당할 비난이다.

60여년간 미국이 남조선에 강점하고 주인행세를 하고있는 것도 민족의 비극이며 침략자에게 《유지비》까지 설치하며 《보양》하는 반역의 무리들이 존재하고있는 것도

참을수 없는 수치이다. 8.15해방과 함께 남조선에 강점한 때로부터 오늘까지 미국이 남조선인들을 비롯한 우리 민족에게 가져다준것은 피의 살육이고 분렬의 아픔이며 대결의 고통뿐이다. 1945년 9월 8일 남조선에 침략의 군화발을 들여놓은 때부터 미국은 일명 《맥아더교》를 통해 침략자, 강점자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냈다. 악명높은 일제의 《총독》정치를 그대로 이어받은 《군정》실시, 조선민인의 정치운동에 대한 일제정치, 점령군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과 엄벌... 이것은 전범국도 아닌 우리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 자결권을 침해한 불법무도한 것이며 1945년 7월 미국도 서명한 포츠담회담과 선언의 지에도 어긋나는 비법적인 것이다. 이 《포고》에 따라 미군

은 남조선인민들의 자주권을 송두리채 짓밟고 민족분렬을 조장하였으며 남조선에서 야만적인 파쇼체제를 감행하였다. 전조선에 강점하고 세계제 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북침전쟁을 도발하여 삼천리물피의 살육장으로 만든 미국은 정전후에도 남조선을 피의 범죄시작장으로, 《사냥터》로, 오물처리장으로 전락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친미보수세력은 미국의 옷자락에 감겨들어 갖은 민족적수치와 모멸, 재앙을 스스로 불러오고있다. 미국의 《인준》을 받아야 집권할수 있고 사사건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움직일수 있는 식민지하수인의 처지를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며 《미패시항관계》니, 《혈맹》이니를 떠들고 있는 반역의 무리이다. 남조선에 침략자가 들고있고 현 집권세력을 비롯

문점사건을 비롯한 각종 군사적도발을 감행하였는가 하면 《립스피르러》, 《키리졸브》, 《울지프리엄더언》 등 대규모군사연습을 해마다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남조선 강점 미군은 철저히 침략자, 살인마의 무리이며 민족분렬의 원흉, 통일의 주되는 장애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친미보수세력은 미국의 옷자락에 감겨들어 갖은 민족적수치와 모멸, 재앙을 스스로 불러오고있다. 미국의 《인준》을 받아야 집권할수 있고 사사건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움직일수 있는 식민지하수인의 처지를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며 《미패시항관계》니, 《혈맹》이니를 떠들고 있는 반역의 무리이다. 남조선에 침략자가 들고있고 현 집권세력을 비롯

한 친미사대주의자들, 민족분렬주의자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한 민족이 겪는 분렬의 고통은 언제 가도 가시어질수 없으며 통일이 그만큼 더 지연되게 될것이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자는 그 과거를 다시한번 체험하도록 벌을 받는다는 말이 있다. 미군의 남조선강점과 꿈에도 꿈서치는 조선전쟁, 분렬의 아픔과 동족대결이 과거가 아니라 오늘도 악몽으로 재현되고있는것이 현실이다. 미국이 강요한 민족분렬이 지속되고 그 하수인들에 의해 북남관계가 최악으로 내달리며 민족의 통일운동이 시련을 겪고있는 오늘의 비극을 끝장내자면 침략자 미군을 남조선에서 내몰고 외세에 아무하는 반역의 무리들을 민족내부에서 하루빨리 쫓아내야 한다. 본사기자 김정혁

#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최근 남조선에서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제주도주민들을 비롯한 각계층의 투쟁이 격렬하게 벌어지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보도제98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제주해군기지건설로 말하면 미국의 침략적요구에 따라 피희들이 제주도내 평화로운 어촌마을을 파괴하고 대규모의 군함을 건설하여 삼을 우리 공화국과 주변나라들을 겨냥한 새로운 전초기지, 병참기지로 만들려는 극악한 범죄적인 책동이다. 각계 제주도주민들과 각계층 시민사회단체 및 야당들은 제주해군기지를 《북침전초기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화약고》라고 규탄하면서 기지건설을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피희대당은 그에 응당 귀를 기울일 대신 제주도에 경찰무리와 진압장비들을 대대적으로 투입하여 의로운 투쟁에 떨쳐나선 주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으며 지어 《친북좌익세력》으로 몰아 체포, 투

옥하는 파쇼적만행도 감행하고있다. 이로 하여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제주도의 강경마을에서는 60여년전 미제침략군과 피희군, 우익갱세들에 의해 수많은 인민들이 잔인하게 학살되던 4.3봉기때의 비극적참상이 다시 벌어지고있다. 이것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인민들의 지향에 대한 횡포무도한 파쇼적폭거이며 제주도주민들의 생존권과 인권에 대한 참혹한 유린이다.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미국의 핵항공모함전함과 핵잠수함을 비롯한 각종 침략성수단들이 이곳에 수시로 드나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은 항시 전쟁위험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될것이다. 결국 제주해군기지건설은 북침전초기지를 다그쳐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흉심의 발로로서 지금 은 민족의 치맛은 격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에 대한 내외여론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있는 속에 남조

선 전지역에 있는 수많은 미제침략군기지도 모자라 최남단의 제주도 마을까지 침략전초기지로 삼기바치려고 발광하는 피희군과 우익갱세들이야말로 통일도 평화도 민생도 안중에 없는 민족반역의 무리이다. 제주해군기지건설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지역정세안정을 파괴하는것으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분노한 민심과 내외여론의 경고를 똑바로 보고 침략적인 해군기지건설을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 만약 피희대당이 거래의 지향과 요구에 역행하여 계속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매달린다면 내외의 더 큰 항의와 규탄에 부딪치게 될것이다. 제주도주민들을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층인민들은 4.3봉기의 그 정신, 그 투쟁도 평화와 안정, 생존권을 엄중히 위협하는 피희군과 우익갱세들의 해군기지건설책동을 반대, 배격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올려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남조선에서 10월 26일에 있게 될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야간의 대결이 치열해지고있다. 가관은 죄많은 《한나라당》이 눈에 달이 떠서 민심 낚기와 지지세력확장에 매달리고있는것이다. 어떻게 하나 재집권의 기반을 닦기 위한것인데 이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반영은 차갑고 냉담할뿐이다. 원래 이번의 10.26 《선거》는 몇몇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만 뽑는것으로 되어있었다. 그런데 지난 8월 학생들의 금식문제를 놓고 진행된 주민투표에서 《한나라당》 소속의 서울시장 오세훈이 패배하고 그 결과를 사퇴함에 따라 새 시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겹치게 되었

던것이다. 알려진것처럼 지난해 민주당이 학생들의 금식문제를 처음으로 들고나온 후 이를 둘러싸고 여야간의 갈등과 대립은 격화되어왔으며 그것은 지난 8월에 있는 주민투표에 이어졌다. 《한나라당》과 서울시장

대와는 달리 주민투표는 법적효율을 발생시키는 기준선인 3분의 1(33.3%)에도 미치지 못하여 개표도 못해보고 무효로 되고말았다. 불순한 정치목적들을 노리고 추진시켜온 주민투표에서 또다시 민심의 맹배를 받게 된것으로 하여 《한나라

지금 서울시는 시장의 사퇴로 인한 행정공백으로 하여 처리해야 할 민생관련문제를 누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있다. 더우기 서울 주민들은 4월에 있는 《재보궐선거》와 이번 주민투표에 이어 서울시장 《선거》에 또다시

에 빠져들어 이러한것들은 뒤전으로 밀려난 상태이다. 결국 서민생활과 관련한 문제들은 당과정치외교정치적인것을 우선시하는 《한나라당》에 의해 묻혀버리고말았다. 사실들은 남조선에서 벌어진 《주민투표》라는것이 인민생활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권력파 부귀영화를 위한 정상배들의 정치적협잡극이라는것을 또다시 보여주고있다. 오를 남조선인민들이 바라는것은 참다운 민주주의와 인간으로서 살아갈수 있는 자유와 권리이다. 민심을 외면한 정치가는 오래가는 법이 없다. 다가오는 《선거》가 이를 실증해줄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 반전평화운동에 대한 폭압책동을 규탄

남조선의 민주인생평화통일주권연대가 3일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반전평화운동에 대한 당국의 무차별적인 폭압책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2일 당국이 1000여명의 폭압무리를 내몰아 제주도 강경마을일대를 쫓대발오 만들고 기지건설을 반대한 투쟁참가자 30여명을 연행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주민들이 4.3봉기사태이후 처음으로 광경이라고 하면서 그

날의 아픔을 간직하고있는 섬에 중무장한 폭압무리들이던 당국을 강력히 규탄하고있다고 성명은 밝혔다. 성명은 제주해군기지건설을 결사반대한다고 강조하였다. 남조선의 제주해군기지건설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가 2일 서울의 《정부》종합청사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가지고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각계층 인민들에 대한 당국의 비열한 탄압행위를 규탄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는 경찰

이 새벽어둠을 리용하여 강경마을로 들어가는 모든 통로들을 차단한데 이어 30여명의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끌고간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것은 명백히 4.3봉기때의 폭압사태를 재현하는 데로 행위라고 단체는 비난하였다. 단체는 평화를 지키려는 제주도의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당국의 폭력행위에 격분을 금할수 없다고 밝혔다. 본사기자

# 《선거》 바람에 녹아나는 민생

오세훈은 이번 주민투표가 기회로 멀어지는 민심을 둘러세우고 저들의 정치적인기를 올려 재선에 있게 될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타산밑에 시장직사퇴를 운운하며 주민투표에 달려들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기

대와는 달리 주민투표는 법적효율을 발생시키는 기준선인 3분의 1(33.3%)에도 미치지 못하여 개표도 못해보고 무효로 되고말았다. 불순한 정치목적들을 노리고 추진시켜온 주민투표에서 또다시 민심의 맹배를 받게 된것으로 하여 《한나라

수천만US\$의 막대한 혈세가 탕진되는것으로 하여 엄청난 재정적부담을 걸머지게 되었다. 현재 제18대 《국회》가 끝나는 이달에 처리해야 할 법안만 해도 수많은 쌓여있다. 그런데 남조선정체제가 《한나라당》이 일으킨 정치적협잡음으로 녹아나갔는지 서민생활이라는 데 있다.

이것은 또한 거지 제 자루 뜯기마냥 내부의 알뜰만을 추측하였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복지》의 구실밑에 벌려놓은 정치적협잡음으로 녹아나갔는지 서민생활이라는 데 있다.

이것은 명백히 4.3봉기때의 폭압사태를 재현하는 데로 행위라고 단체는 비난하였다. 단체는 평화를 지키려는 제주도의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당국의 폭력행위에 격분을 금할수 없다고 밝혔다. 본사기자

# 단평 민심을 낚기 위한 《복지》리영

최근 《한나라당》이 그 어느때보다 《복지》에 대해 입이 닳도록 떠들어대고있다. 이들은 저들소속 《국회》의원들의 연찬회를 통해 《서민들을 위한 보편적복지》를 당론으로 정한다. 당내에 《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며 부산을 피우고있다. 이것이 민심을 유혹하여 이제 있게 될 《재보궐선거》에서 저들 쫓겨를 당선시키고 나아가서 재년의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무난히 치르려는데로 부터 출발한것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한 민심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남조선인민들은 현 보수집권세력이 《선거》때마다 내놓는 《공약》이랑이 얼마나 기만에 찬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있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은 말이 아니다. 실업자만 하더라도 수백만명에 달하고 가정들이 진 빛은 900조원에 달하고있다. 대학등록금이 1만US\$에 이르러 많은 대학생들이 배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으며 빈부의 차이가 하늘땅차이로 벌어지는 속에 직업을 가지고 죽도록 일할 해도 날이 갈수록 가난해지는 새로운 신빈곤층까지 생겨나는 등 남조선은 말그대로 사람 못살 인간생지옥으로 전락되었다. 이것이 바로 《친서민정책》이니 뭐니 하며 집권한 후 현 보수당국이 펼쳐놓은 남조선의 현실이다. 남조선정체를 총체적인 파국으로 몰아넣고도 무슨 《복지》를 떠들고있으니 보수집권세력이야말로 낮가지족이 목발동보다 더 두렵다해야 할것이다. 보수집권세력이 민심을 낚기 위한 《복지》리영을 아무리 떠들어도 속을 사 람은 아무도 없다. 김일환

이것은 명백히 4.3봉기때의 폭압사태를 재현하는 데로 행위라고 단체는 비난하였다. 단체는 평화를 지키려는 제주도의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당국의 폭력행위에 격분을 금할수 없다고 밝혔다. 본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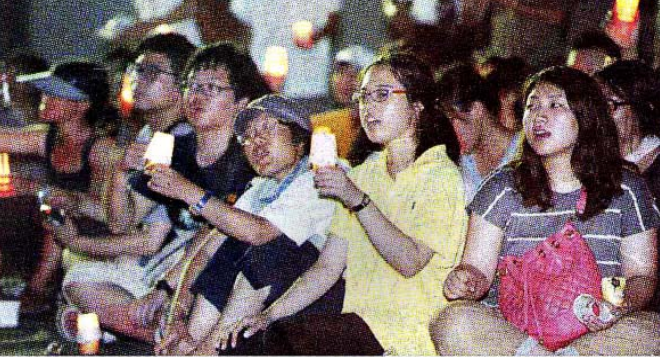
제주해군기지건설반대투쟁에 나선 남조선인민들

파도소리만 들리며 평화로운 분위기에 있던 제주도에 파조의 광풍이 세차게 불고 있다. 최근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파쇼무리를 내세워 제주도에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감행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남조선보수당국은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던 저들의 범죄적인 책동이 현지 주민들의 강력한 항거에 부닥치자 지난 8월 26일 《공안대책회의》를 열고 그 수습대책을 토의하였다. 검찰과 경찰, 정보원, 국방부, 고용노동부, 기무사령부 등이 모여 진행한 이 《협의》에서 파쇼세력들은 제주도 주민들의 해군기지반대투쟁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가담자전원을 끝



제주해군기지건설반대투쟁에 나선 남조선인민들

까지 추적하여 형사처벌할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안당국은 목지로부터 제주도내 수백명의 시위진압기동경찰과 수많은 폭압장비들을 긴급투입하였는가 하면 해군기지만대투쟁 참가자들을 《친북좌익세력》으로 몰아가며 구우보수강패들까지 내몰았다. 아닐수 없다. 제주도해군기지건설을 남조선미국 《호상방위조약》에 따라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이 제주도에 대규모의 군함을 건설하여 삼을 공화국과 주변나라들을 겨냥한 새로운 전초기지, 병참기지로 만들려는 위험천만한 범죄행위이다. 의 보수당국은 제주도를 기어코 침범해군기지로 만들기 위해 파쇼무리를 내몰아 대대적인 파쇼탄압을 강행한것이다.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미국의 핵항공모함전함과 핵잠수함을 비롯한 각종 침략전초기지가 이곳에 수시로 드나들게 되고 그렇게



제주해군기지건설반대투쟁에 나선 남조선인민들

들이 남조선의 전지역에 미군기지를 제공한것도 모자라 평화로운 제주도마을까지 침략전초기지로 삼기바치려고 하는것은 그들이야말로 나라의 평화와 통일도, 민생도 안중에 없는 반역무리라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지금 제주도주민들은 남조선의 각계와 야당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속에 해군기지건설반대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평화를 파괴하는 해군기지는 절대로 제주도에 들어설수 없다는것이 분노한 남조선민심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남조선당국은 분노한 민심의 요구가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조선반도에 전쟁위험한 증대시키는 제주도해군기지건설을 당장 견여치워야 한다. 본사기자 김응철

# 언론에 대한 독재적압박의 증지를 요구

남조선의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2일 당국의 독재적인 언론탄압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이날 대법원에서 미국산소고기수입의 위형성을 폭로한 《MBC》 방송의 《PD수첩》 제작진이 무리가 선고런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현 《정권》이

별된 언론탄압의 부당성이 확인되었다고 논평은 지적하였다. 논평은 《정권》과 검찰이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는것과 함께 언론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독재적인 언론장악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 평화를 파괴하는 해군기지건설책동

1948년 제주도 4.3봉기때 목지에서 과경된 파쇼경찰과 《서북청년단》, 토벌부대가 감행한 학살만행을 방불케 하는 이번의 폭압운동으로 수많은 주민들이 체포 투옥되었다. 이번의 탄압운동은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인민들의 지향에 대한 횡포무도한 파쇼적폭거로서 제주도인민들의 생존권과 인권에 대한 참혹한 유린행위가

# 위기의식의 발로

하기에 제주도주민들과 각계층 시민사회단체 및 야당들은 《전쟁조장하는 제주해군기지 반대한다!》는 구호 밑에 기지건설반대투쟁을 강력히 벌려왔다. 제주도주민들의 기지반대투쟁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애국운동으로서 결코 탄압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침전쟁준비에 혈안이 된 남조선

# 경찰청장을 단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 본부가 2일 경찰청장을 단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경찰청장 조현오가 지난 7월 서귀포경찰서에 나타나 해군기지건설반대투쟁을 결코 방임해둘수 없다고 체첸데 이어 내륙으로부터 중무장한 폭압무리를 제주도에 들이밀어 강경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탄압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성명은 이러한자가 제주도에 4.3사태의 악몽을 재현하고있다고 단죄하면서 파쇼동맹을 휘둘러 기지건설반대투쟁을 탄압하려는 전쟁대결경쟁의 망명을 한여름밤의 개꿈이라고 조소하였다. 성명은 당국이 평화를 사랑하고 통일을 넘nip하는 민중의 힘을 폭력으로 꺾을수 없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 언론에 대한 독재적압박의 증지를 요구

남조선의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2일 당국의 독재적인 언론탄압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이날 대법원에서 미국산소고기수입의 위형성을 폭로한 《MBC》 방송의 《PD수첩》 제작진이 무리가 선고런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현 《정권》이

# 언론에 대한 독재적압박의 증지를 요구

남조선의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2일 당국의 독재적인 언론탄압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이날 대법원에서 미국산소고기수입의 위형성을 폭로한 《MBC》 방송의 《PD수첩》 제작진이 무리가 선고런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현 《정권》이

# 언론에 대한 독재적압박의 증지를 요구

남조선의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2일 당국의 독재적인 언론탄압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이날 대법원에서 미국산소고기수입의 위형성을 폭로한 《MBC》 방송의 《PD수첩》 제작진이 무리가 선고런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현 《정권》이

